

##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 새해에 바뀌는 것 ①

## 교구가 개편된다

교구장, 교구 목사와 2명의 여전도사가 교구 업무 담당  
13개 대교구와 국제교구로 개편, 27개 소교구로 운영  
이번주 부터 시행에 들어가

교회는 교구운영의 합리화와 심방의 강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23개 교구로 운영되어 온 것을 13개 대교구와 국제교구로 개편하였다. 대교구는 2개 소교구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3개 소교구와 1개 국제교구가 증설된 27개 소교구가 되었다.

대교구에는 교구장(장로), 지도목사가 각 1명씩 있고 소교구에는 각 1명의 여전도사가 배치되어 교구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교구 목사들은 대교구내 교인의 영적 성장을 위한 말씀 증거, 신앙상담, 심방, 경조, 예식 등에 관한 업무와 전도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전도사들은 교구 목사를 보좌하여 자신이 담당하는 소교구

의 신앙상담, 심방, 경조, 예식 등의 업무를 협력한다.

교구편성의 기본원칙은 서울시 행정단위를 따랐으며 교회가 위치한 곳을 제1교구로 시작하여 시계방향으로 교구 명칭을 부여했다.

이 계획을 앞당겨 실시하기로 하고 이번 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교구 개편에 따른 전도회, 교구운영 방침은 별도로 정하게 된다.

개편되는 교구 편성과 담당 교역자는 다음표와 같으며 교구장의 인사는 내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 · 새로 개편된 교구와 교역자 ·

| 교구    | 교구명  | 지도  | 전도사                  | 담당 관할 지역                                                                  |
|-------|------|-----|----------------------|---------------------------------------------------------------------------|
| 제1교구  | 강남1구 | 성봉환 | 1-1 오인숙<br>1-2 윤인숙   | 역삼동 650번지~705번지<br>역삼동 706번지~이후                                           |
| 제2교구  | 강남2구 | 이종대 | 2-1 최순복<br>2-2 정복인   | 역삼동 601번지~649번지,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br>논현동, 신사동                               |
| 제3교구  | 강남3구 | 한용관 | 3-1 계선화<br>3-2 최명자   | 개포동, 일원동, 자곡동, 수서동<br>도곡동, 대치동, 포이동                                       |
| 제4교구  | 서초구  | 박정규 | 4-1 배옥인<br>4-2 정양순   | 잠원동, 반포동, 방배동<br>서초동, 양재동, 우면동, 내곡동, 신원동, 원지동, 기타                         |
| 제5교구  | 남구   | 이홍성 | 5-1 송향자<br>5-2 박종화   | 관악구, 구로구(시흥동, 독산동)<br>동작구, 구로구(가리봉, 개봉동, 고척동,<br>구로동, 궁동, 대림동, 신도림동, 오류동) |
| 제6교구  | 서구   | 김광국 | 6-1 장혜순<br>6-2 이옥자   |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br>마포구, 용산구                                                |
| 제7교구  | 중구   | 최인근 | 7-1 장영자<br>7-2 최지혜   | 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br>중구                                                      |
| 제8교구  | 북구   | 조동원 | 8-1 황정순<br>8-2 박희자   | 도봉구, 중랑구, (망우동, 면목동)<br>노원구, 중랑구, (목동, 상봉동, 신내동, 중화동)                     |
| 제9교구  | 동성구  | 조윤재 | 9-1 장연희<br>9-2 김정숙   | 성북구, 동대문구<br>성동구(왕십리, 홍익동, 도선동, 금호동,<br>용봉동, 행당동, 옥수동, 마장동, 사근동, 용답동)     |
| 제10교구 | 동구   | 정광욱 | 10-1 현정남<br>10-2 김정순 | 성동구(군자동, 송정동, 성수동, 화양동,<br>자양동, 중곡동, 광장동, 구의동, 능동, 모전동)<br>강동구            |
| 제11교구 | 송파구  | 김희수 | 11-1 신동자<br>11-2 손미희 | 잠실, 신천동, 풍납동, 삼전동, 석촌동<br>송파동, 방이동, 오금동, 가락동,<br>문정동, 거여동, 마천동, 장지동, 기타   |
| 제12교구 | 경기1구 | 임성환 | 12-1 김정자<br>12-2 임태주 | 구리, 미금, 의정부, 남양주, 하남, 성남<br>광주, 분당, 판교, 용인, 과천, 안양                        |
| 제13교구 | 경기2구 | 김찬곤 | 13-1 김옥윤<br>13-2 오정숙 | 군포, 의왕, 안산, 수원, 광명, 고양<br>부천, 인천, 부평, 김포                                  |
| 제14교구 | 국제교구 | 장우천 | 최경미                  |                                                                           |

## 고3 학부모 기도회

매일 오전 10시, 베다니홀에서

대학입시를 앞둔 고3 학부모들이 모여 실시하는 기도회가 교회학교 고등부 주관하에 새벽기도 1부 시간과 매일 오전 10시부터 베다니홀에서 열리고 있다.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열리는 이 기도회에는 매일 70~80명의 학부모가 참석하여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다. 기도회 인도 및 말씀은 고등부 지도 윤삼중 목사. 이 기도회를 통해 큰 힘을 얻고 있다는 참석자들의 말이다. 고3 학부모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헨델의 메시아

## '94 성탄축하 연합찬양

찬양위원회에서는 '94 성탄절을 맞으며 우리 교회 7개 찬양대와 오케스트라가 모두 참여하여 최대 규모의 연합찬양대를 구성하여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연주하기로 했다. 예상 인원은 600명, 지휘는 김영준 집사(할렐루야찬양대 지휘), 반주에 충현 오케스트라와 임효선 집사(오르간).

한편 이를 위해 전 찬양대원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와 주일 찬양예배 후 연습하며 연습은 파트별로 정해진 장소에서 한 후 갈릴리홀에서 전체가 모여 한다.

매년 성탄축하음악예배를 드리지만 이번에는 메시아를 합창뿐만 아니라 독창, 반주까지가 완벽하게 어우러져야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곡이기에 그동안에는 부분 부분으로 연주해 왔었지만 이번에는 전 찬양대가 연합으로 단합된 마음으로 향

상된 기술, 훌륭한 솔리스트, 오케스트라 반주 등으로 연주하게 되어 큰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 전국직장선교 예술제 성료

본 교회 신성종 목사가 지도위원으로, 김천채 장로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전국직장선교 연합회에서는 제10회 직장선교 예술제를 지난 10월 29일(토) 햇빛선교센터에서 전국 직장인들이 모인 가운데 다채롭게 개최하였다.

본 교회 전도위원회의 후원과 최덕식 교수의 찬조출연을 결집된 본 행사는 전국 각 직장인 대표 합창을 비롯 국악, 무용, TV연기자 연극 등 다양한 복음예술의 조화와 사회 각 분야의 평신도 활동의 중요성과 직장선교활성화를 이룩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데 크게 이바지 하였다.



제28대 장로 10명 탄생 지난 10월 20일(목) 오후 7시, 본당에서 제 28대 장로장립식이 거행됐다. 성도들과 내외 축하객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날 장립식은 당회장 신성종목사의 사회와 총회총무 서성수 목사의 기도, 합동신학교 학장인 윤영택 목사의 성경봉독, 총회장 김덕신 목사의 설교 및 서약, 안수기도, 부총회장 정석훈 목사 및 총회서기 김선호 목사의 권면, 증경 총회장 이성택 목사의 축사, 김창인 원로목사의 축도로 끝난 이날의 장립식은 시종 엄숙 하면서도 감사가 넘친 가운데 진행되어 장로를 세우고, 세움받는 일에 대한 책임과 의무,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들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

4 장부터는 미래에 일어날 계시를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세 가지를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계 1:19) 첫째로 “네 본 것”, 즉 과거계시와 “이제 있는 일”, 즉 현재계시와 “장차 될 일”, 즉 미래계를 기록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4장 1절을 보면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 1절에서부터는 미래에 일어날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 1. 하늘의 문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라니 이 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도 요한은 하늘의 계시를 받을 때에 한꺼번에 다 받은 것이 아니라 일곱 단계로 나누어서 받았습시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계 1:17) 여기부터가 첫째 계시입니다. 그런데 4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두번째 계시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을까요? 이것은 하늘의 계시가 너무도 신령하고 무섭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첫번째 하늘의 계시를 보았을 때에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다(계 1:17)고 했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면 죽은 자처럼 온 몸이 굳어버립니다. 사도 요한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일곱 단계로 신령한 계시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두번째 계시 중 제일 먼저 본 장면은 문입니다. 그 문은 하늘의 문으로 열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1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신령한 비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땅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든지간에 먼저 하늘에서 계획되고 결재받고 나서야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잠 16:1)고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결국 마지막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잠 16:9)고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없는 하나의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이나 개개인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결재를 받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보여주시지 않으면, 즉 계시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문은 언제 열리니까? 기도할 때 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게 하늘의 문이 항상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하늘의 문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 2. 두 가지 준비

하나님께서 미래계시를 보여주는데 놀라운 것은 문을 열고 나서 바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나팔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소리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 음성의 내용은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1절)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영광의 보좌요, 은혜의 보좌인데 그 보좌로 올라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복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입니다. 또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준비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2절)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천국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깨달을 때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 3. 하나님 보좌에 대한 환상

충현장단



#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1)

(계 4:1-3)



신 성 종

<목사·당회장>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2절)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다”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보좌입니까? 이 보좌는 영광의 보좌입니다. 죄인들은 감히 볼 수도, 갈 수도 없는 보좌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또 이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누구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할지라도 보좌로 가지만하면 다 해결되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평가하는 보좌입니다. 그래서 엄위롭고 무서운 보좌입니다. 이런 보좌를 하늘에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을 세 가지 보석으로 표현했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3절)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결재를 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같다고 했습니다. 벽옥은 보석 중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입니다. 성경학자들 중에 벽옥을 다이아몬드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고 자스퍼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벽옥이 하나님의 성품을 뜻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하신 성품을 뜻하는

것으로 다이아몬드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결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음식에 관한 규례가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데 결론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자녀인 우리들이 성결하기를 원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분입니다. 세상의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속한 우리도 구별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별되어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기본적인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면서 몇 가지를 지시했습니다. 이것을 신약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할례를 받았

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에게 속한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신약시대에 와서 세례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

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양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성수주일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보통 때는 저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 알기 힘들습니다. 그러나 성경 찬송을 듣고 교회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임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구별되어 사는 방법은 십일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세금을 냅니다. 한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께 세금을 냅니다. 이것이 바로 십일조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홍보석과 같은 분이십니다. 홍보석은 루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공평하신 재판장이십니다. 인간이 사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인데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새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가 가려집니다. 그 말은 바로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홍보석 같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녹보석 같은 분이십니다. 녹보석은 에메랄드, 즉 비취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신 5:10)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요 1:17)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싸 있습니다. 무지개의 뜻이 무엇입니까? 노아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신 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창 9장). 영불변하는 언약의 징표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벽옥같이 성결하시고 홍보석처럼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용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녹보석과 같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약속을 해놓고 잘 어기지만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불변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일방적으로 언약을 깨트려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루어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고, 천국가는 문이, 은혜의 보좌에 가는 문이,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섬김의 문이 열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하는 성장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수험생들에게 보내는 편지

## 수험생들이여 들으라

개인적으로 자상하게 편지를 보내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다. 그러나 한 둘이 아니다보니 이렇게 성의없이(?) 격려하고 있음을 용서바란다. 굳이 변명하자면……,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라.

내가 지금 이렇게 편지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대학입학을 위한 수험생의 생활이 남다르게 어렵다고 여기기 때문만은 아니다. 따지고보면 이 세상에 어렵지 않은 일이 어디 있는가? 어쩌면 대학 진학은 그렇게 절실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가정을 책임지는 분의 경우에 한번 실수나 좌절을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결정짓는다. 오히려 대학 졸업 후 고등실업자로 남는 사람의 경우는 대입 실패자보다 더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된다. 그러나 대입 수험생은 다음에 또 공부하면 된다는 여지라도 있지 않은가?

우리 모두는 다 수험생이다. 사회 적응과 생존을 위하여 대학 진학이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사실 그것이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는 아니다. 모든 사람은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24시간을, 마치 시험치는 사람처럼 지금까지 배운 바를 다 동원해서 최선의 선택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의 태도를 배우는 것이 본질이지, 한 과정에서 주어지는 결과에 마치 목을 매다는 사람처럼 살아서야 되겠는가?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능지수도 낮고 신체도 정상이 아닌 사람이 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 체면이나 위신을 생각하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는 잘 이해되지도 않는 교과서를 들고 씨름하면서 최선을 다한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만족이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그가 살아가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를 귀히 보신다. 이 사람은 사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다. 결과보다는 과정과 태도에 승부를 거는 사람이 중국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이다.

어떤 점에서 수험생에게 보내는 이런 편지가 사치스럽다고 생각될 때가 있다. 사실은 수험생이라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지 않는가? 우리 주변에는 시험조차도 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한 해 더 공부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 조그만 일에 서러움을 느끼고,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일부 수험생들이 있을까봐 노파심에서 몇 자 적어보는 것이다. 사실 그렇지 않은가? 성격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함부로 생각한다든지, 자존심 상하는 말 한 마디 들었다고 마치 자기가 자기 생명과 장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듯이 생명의 주인되신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너무 지나치다고 불평하지도 말라. 부모님이라는 그 사실 때문이라도 무관심할 수 없는 분들이다. 결혼해서 자식낳고 살아보면 안다. 성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표현상의 문제일 뿐이지, 세상 부모는 다 자식 때문에 산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진리에 가깝다.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불평하는 사람 있는가? 과분해서 하는 정신없는 말이다. 부모님은 내 입장보다는 부모님 입장을 더 생각하신다구? 나 같으면 그러지 않겠는가? 몇 번 죽을 고비 넘기면서 20년 키웠는데, 나 같으면 자식 때문에 큰소리 치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 이것 저것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신앙에 승부를 걸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잃지 말라.

물론 다 안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쉬운 길을 택하고 싶고 좀 더 편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난들 왜 그런 마음이 없을까마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항상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그 무엇을 위해서 나의 도움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불편해 하고 어려운 길을 자초하며 나아가 편안히 누워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생활이 재미있게 느껴지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수준인 것이다.

얼마 남지 않았다. 조금은 바쁘고 힘들 때가 있는가 하면, 잠시 후에는 설 때가 온다. 최선을 다하자. 기도하다!

1994. 10. 30.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시키는 일에  
쓰임받고 싶은 장로님 목사님

□ 대학부 예수사랑 큰잔치를 앞두고 □

## 잃은 양을 돌아보며

전 일 승

(대학부 회원)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또 그 안에서 함께 해왔던, 그러나 지금은 우리 주위에 보이지 않는 잃어버린 지체들을 돌아 보아야 할 때다. 모두가 서로를 격려할 줄 알게 되고 모이기에 힘쓰며 우리들의 관심과 격려로 약한 자를 돌아 볼 줄 알게 되어 가야 하는 것이다. 공동체가 분출해 낼 수 있는 힘과 그 힘의 실질적 역동성의 방향에는 모든 지체들의 적극적 동참과 그 일에 대한 공동체적 안목이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 주위를 살피는 일이 그리 쉽지 않은 않다. 왜냐하면 마음쓰지 않고 살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모든 형편과 사정을 점검하여 품어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수준의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여전히 개인의 삶에 힘겨워하고 늘 끊임없이 다른 이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주위를 돌아보며 그러한 사정을 품을 만한 여유까지는 기대할 수 없지 않은가 한다.

여유가 있어야, 형편이 허락해야 주위를 돌아볼 수 있다는 그러한 수준은 넘어서자. 결국 나 자신을 내 힘껏 추수할 수 있고 늘 내게는 부족함이 없고 다른이의 도움이 그리 필요치 않고 굳건함으로 건디어 낼 수 있는 그런 만족스런 상황은 지속성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우리에게도 서로를 격려해 줘야 할 것이고 위로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와 짧은 만남만을 갖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는 지체들은 분명 더욱더 견고한 격려와 위로가 우리로부터 그들에게로 흘러가야 한다.

내 형편과 처지도 추스르기 힘든데 잃은 양들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새로운 충격요법이 또 필요한 기계적 존재일 수밖에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의 여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공동체성을 키워가며 이웃을 섬기며 돌아보아 줄 줄 알게 되는 좋은 은총의 기회를 우리가 너무 소홀히 여겼음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의 긍휼하심을 좇아 우리의 잃어버린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겸손히 구해야 하리라.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세상을 얻는 것일진데 다시 한번 사람을 섬기며 가슴에 품는다는 것 역시 예수님이 이 땅을 향하여 품으셨던 그 마음과 그 놀라운 열정을 우리가 닮아가는 귀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에게 잃은 양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다. 이제는 두번 다시 놓치지 말자.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다시 한번 잃은 양을 우리에게로 돌이키시며 함께 먹고 마시라고 권하실 때 울타리 밖에서 굶지 않은 것을 묻히고 들어온 이방인을 대함이 아닌 우리와 한 마음을 품고 주를 섬길 귀한 우리의 지체임을 새기며 주의 권고하심에 감사하자.

요한복음 5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라고 하셨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행하셨으며 그로 인하여 그가 영광을 받게 되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지체를 우리는 감히 타인으로 대할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지체를 이루는 한 몸인 것을 알아서 우리의 함께 하지 못함은 곧 우리의 온전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일 수밖에 없음을 알고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잃은 양을 다시 찾아야 하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기 전에……

## 물맷돌

## 그리스도인이란 ②

그리스도인이란 온전히 주님을 의뢰하고 사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신앙이란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자꾸 실력, 능력, 부(富), 건강 등 우리 자신의 것을 확보하려고만 한다. 확보는 주를 붙잡는 확보이어야 하지 주를 놓고 혼자 설 수 있는 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를 잡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직접 오실 필요까지 있습니까? 돈이나 많이 주시고 성공이나 주시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이런 것은 아닌지.

## 토막소식

- ◆ 대학부는 11월 5일과 6일에 있을 예수사랑 가을잔치를 위해 10월 24일 - 28일 열린기도회(7시, 메추라기홀), 10월 29일 건국대 캠퍼스 전도(새벽예배 후 10시까지 건국대 정문에서 모임), 10월 29일에서 11월 5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6시-7시)로 모인다.
- ◆ 청년1부는 교회와 청년부의 영적 부흥과 각 개인의 신앙성장, 각 부서의 기도제목을 놓고 매주 수요일 11부 예배 후 새가정부실에서 기도회로 모인다.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 ◆ 청년2부는 오늘 면회회 총회로 모여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한다.
- ◆ 새가정부는 '가정세미나'를 11월 13일(주일)에 '성경적인 태아교육'과 11월

20일(주일) '기도로 양육하는 엄마'라는 주제로 모여며 강사는 전주예수병원 정신과장·완산교회 장로인 김임 교수.

## 제3교구 찬송가 부르기 대회

오늘 IV부 예배 후 교육관 212호실

제3교구(교구장 박승준 장로)는 10월 30일(오늘) 교구내 협력구역별로 찬송가 부르기 대회를 갖는다. 그동안 예수사랑 큰잔치를 치르고 나서 서로 위로와 격려, 또한 새가족을 환영하는 일 등을 겸해 가지기에 명칭도 '예수사랑 작은 잔치 겸 찬송가 부르기 대회'로 정하고 실시한다. 이미 지난 주일로 각 협력구역별 신청을 끝내고 오늘 제3교구 모임실(교육관 212호)에서 IV부 예배후 실시될 이 대회는 3교구 식구들이 모두 총동원되어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된다.

## 다함께 기도합시다

##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 김창인 목사 : 30일(주일) 뉴욕 산정현교회, 31일(월)~11월 2일(수) 뉴욕산정교회, 11월 4일~6일 워싱턴 제일 순복음교회 설교
- 신성종 목사 : 31일(월) 목회자 세미나 강의, 11월 2일(수) 한양기독교실업인회 특강(르네상스 토포스룸)
2. 대학 진학 및 취업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특히 고3 학생들에게 지혜와 충명을 주시사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3. 충현의 새가족으로 등록한 형제, 자매들마다 하나님 품 안에 주소를 정하는 천국의 시민들이 되게 하옵소서.
4. 종교개혁 477년을 맞이하여 한국의 교회들이 더욱 새로운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5.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능력을 주시사 국정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개혁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옵소서.

## 주

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부족한 저희들이 1년간의 안식년을 마치고 선교지인 수리남으로 무사히 돌아와 다시금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의 안식년을 허락하시고 대리 사역자를 파송해주신 충현교회를 비롯해 저희들의 안식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교회와 개인 여러분들과 그 가족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대신해 이곳 수리남에 아들 준영이를 데리고 오셔서 지난 7월 19일 수리남을 출국하실 때까지 14개월을 수고하신 김창수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와 모기, 또 이민교회의 특수상황, 현지인 교회, 여러 종족의 현지인, 또 그들의 각기 다른 문화에 적응하며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무척 어려움이 많으셨을텐데 아주 잘 감당하셔서 교회도 더욱 부흥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김 목사님 가정을 더욱 귀하게 사용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로서는 선교의 동지를 얻었고 수리남으로는 기도의 동역자를 얻게 되어 더욱 감사할 뿐입니다.

수리남에 와서 지난 주일에 처음 화란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두렵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했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늘었으며, 특별히 김창수 목사님께서 영어로 설교하시고 Rita(리타)가 화란어로 통역했는데, 영어만 쓰는 몇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영어와 화란어를 같이 사용해서 설교도 하고 성경공부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언어실력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도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2일부터 현지인들과 가정을 대상으로 심방을 시작하였으며, 한인들을 위해서도 26일부터 대심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은 한인들이 사는 수리남에서 성경공부와 말씀으로 꾸준히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중에는 자신이 차로 현지인들을 먼 곳에서부터 태워오고 태워가는 교인들도 생겼고, 자신의 가게에 나오는 종업원들도 교회로 인도하는 교인들로 성장한 것을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안식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파송교회인 충현교회를 방문하면서 직접 파송해주셨던 원로 김창인 목사님과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의 뜨거운 사랑과 저희를 위해 간절하게 빌어주시는 기도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당회원 여러분들과 그동안 기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던 동역자님들, 교사님들, 제



## 선교지에서 온 소식

## ● 수리남 / 안식년 선교사 ●



## 수리남은 여러분의 날마다의 기도제목입니다.

자들, 친구들 또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세계선교회를 맡고 계시면서 수리남 선교를 위해 적극적으로 후원해주신 하대선 장로님과 간사 김현곤 집사님, 그 외에도 선교부에서 남모르게 수고하시는 많은 집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수리남을 위해 기도해주시는 도원회와 아메리칸 권사님을 비롯해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수리남 선교를 위해 충현교회 선교부에서 컴퓨터를 준비해 주셔서 이렇게 선교편지를 작성하는 등 유익하게 사용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컴퓨터의 구입과 사용을 위해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약 9개월간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부모님과 형제들이 함께 가깝게 생활할 수 있었으며, 특별히 지난 2년 가까이 형님(안석남 집사, 윤정애 집사)댁에서 공부하던 소영이와 위영이와 함께 다섯 식구가 따로 아파트를 얻어 생활했습니다. 그동안 형님과 형수님께서 친말과 같이 키워주시어서 영육간에 잘 자라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리남과 파라과이에서 맛보지 못하던 추위와 이상기온을 겪으면서 너무도 빠르게 시간이 흘러 이제 두 딸을 다시 형님댁에 맡기고 아들 요한이만 데리고 선교지로 떠나와야만 했습니다. 가장 예민한 시기에 부모가 함께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형님, 형수님의 사랑,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아름답게 키워주시길 믿습니다. 소영이와 위영이를 위해서도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곳에 와서 처음 얼마 동안

안 잘 적응이 되지 않아 고생을 했습니다. 음식이나 기후 등이 조금은 미국에 적응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니다. 그동안 진급하지 못하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야학을 통해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윗학년으로 진급함으로 부모님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도에도 좋은 결실을 얻고 있는 것을 볼 때 앞으로 추진하려는 학교사역을 통해 더 큰 열매가 맺어질 줄을 믿습니다. 유치원의 설계부터 완공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주시길 믿습니다.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안식년을 받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만나게 하시고 김창수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리타가 영어로 하는 설교를 화란어로 통역하였습니다. 얼마전 헨드릭이 다른 교회 교역자로 가서 일하게 되어 리타만 저희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몇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저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을 알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헨드릭이 9월부터 통신으로 하는 성경학교를 다니려고 준비하고 있어 직접 도와줄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도우면서 앞으로 함께 일하는 길도 찾으려 합니다. 리타는 이곳 어린이 전도협회의 훈련을 받게하고 성경공부들을 통해 주일학교를 전담할 수 있는 교역자로 키우려 합니다. 헨드릭과 리타, 그리고 장남 르우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저희 교회에 저들이 필요한 것 같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주허가가 8월 말로 끝나기에 입국 즉시 노동허가와 체류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전과는 달리 한국대사관이 철수한 관계로 어려움이 없지나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특히나 어려워진 경제 사정으로 자동차 기름은 쿠폰으로 구입하며, 가게마다 물건들이 많지 않으며 값은 비싸지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생활이 어려워 수리남에 온 가이아나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수리남은 여러분의 날마다의 기도제목입니다.

Rev. SEOK RYEOL, AHN & SUNG OK AHN  
P.O.BOX 8222 (KAIKOESI STRAAT NO.3 GEYERSVLIJT)  
PARAMARIBO SURINAME  
SOUTH AMERICA  
TEL / FAX (597) 45-2816

이제는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요한이가 제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게 되어 잘 적응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서류하러 다니고 심방을 다니므로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또 미국에서 영어로 공부하면서 화란어를 다 잊어버려 이번 학기부터는 이곳에 있는 American Cooperative School이라고 선교사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영어학교에 보내려고 신청하여 허락을 받아 내일 교장 선생님과 통화하여 면담을 하려 합니다. 부모를 따라 이곳에 와서 전과 같이 다리가 이미 모기에 물려 성한 곳이 없는 요한이가 좋은 친구들을 만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곳의 카톨릭은 학원선교를 통한 자연증가(?)로 많은 교인들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지역이 카톨릭권으로 저희가 현지인을 대상으로 선교를 시작하자 저희 교회와 한 건물을 사이에 놓고 천주교회를 세우고는 자기 교인들을 관리(?)하느라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교하는 데 있어 장기적으로 보면 이 땅에 유치원부터 차례로 지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학교를 세우면 합법적으로 학부모들을 불러 화란어를 가르치며, 말씀을 가르치고, 건강 위생 등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 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 유치원을 짓고 이곳에서 말씀으로 무장된 자격있는 교사들과 한 팀이 되어 이 사역을 진행코자 합